

日軍 近接개입 公式자료 발췌한 요시미教授

한국의 독립을 전신대로 본 일본군이 직접 개입을 증명하는 軍자료를 日本 外務省 史料에서 발췌한 요시미 요시아키(吉見 義明) 日中央大교수는 日本의 이번 일을 계기로 불행했던 과거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그 대한 일본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심적인 日本人 학자중 한명이다. 요시미교수는 17일 世界日報의 인터뷰에

서 10만에서 20만명의 이른바 한국인영향을 이 중대한 문제로 회상된 사건은 南京대학살에 못지않은 중대한 역사적事件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는 전신대로의 전신자료들과 배상문제가 하루빨리 매듭지어져야 하며 아울러 한국인경제자유화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註〉

의는 인정치 않고 있다. 위안소는 11월 25일부터 개설된 것을 발췌해 인용케 하며 이로서 혼란을 방지하고 환국의 면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록해 있다. 이는 일본군의 마땅한 외출하면 여러번 특별히 간섭죄를 일으킴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출의출이나 위안소의출이

부인 80명과 내지인 부인 20여 명을 집전한 결과 반도인출의는 화류병에 걸린 사람이 극히 드물며 내지인의 대부분은 급성性病은 아니더라도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른이 나온다. 또 내지인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었으며 그중에는 40세를 넘긴 사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적혀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매춘업의 이미 수면 간 종사해 온 사람이나 반도인이나 나이가 어릴때다 조선자가 많아 '홀미의 대상'이었다고 기록해 있다. 즉 일본인의 여성이 대부분 나이가 많았으며 성병에도 걸려 있었다. 80명의 한국인 여성은 젊고 성병에 걸려 있지 않고 조선자가 많아 인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

일본 국내에서 모집하는 것은 「軍部」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軍의 위신이 손상되고 일반인의 오해가 생긴다는 부른이 나타난다. 이어 이 부른은 국내 모집으로 사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군의 모집을 통제하며 모집원을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 모집의 실부에서 관계지방의 현병 및 경찰과 밀접히 연계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80% 이상 韓國 여성

「일본인」출판사와 外務省의 關한 부분을 부연해 달라. △조창기씨는 모집대상의 일 부 여성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선다 카고(山田夏彦)씨는 「軍」의 위촉을 받고 고종인의 전담반을 돈을 가지고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규슈(九州)로 건너가 여자들을 모으러

확인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직접 여성을 끌고갔다는 자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일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그 시기는 이보다 늦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관한 자료는 이제부터 또 찾아야 할 것이다. 一 軍 위안소가 처음 설치된 시기. △일본군의 공식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38년 초반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8년의 작성된 자료들에 위안소 설치 이후의 상황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들에 위안소가 설치되기 시작한 뒤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관한 주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다면 일본인의 위안소를 직접 설치 관리했다는 좀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중국의 關東州에 주둔했던 제21군이 39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만든 「전신소」를 보면 후방관계 부분에 위안소 상 황이 기록해 있다. 이 전신소에는 「위안소는 경비지구내 장교와 사병들을 위해 경비대장 및 현병대의 감독하에 개입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자료에는 「현재 위안부의 수는 1천명이며 이 중 8백50명여 군의 통제하에 모집된 인원」이라고 밝혀져 있다.

명품 끌려갔다

1992. 1. 18

세계



對談 朴英喜도코특과원



배임한 태도에 日本人으로 中央大의 요시미 요시아키

韓美·日 公明회의 필요

5만 병력의 1천명의 위안부가 필요했다면 당시 일본군의 해외파견병력이 4백만명의 달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전체 위안부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군의 직접 개입이라는 이전은 엄청난 숫자의 위안부를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능가 사건... 각부처 자료 은닉

제수용 日本人, 배상 본받아야